

[ **국 제** ]

# 부시, 올해의 악당이자 영웅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악당이자 영웅으로 조사돼 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AP와 AOL 공동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천여명을 상대로 한 전화 조사에서 25%가 올해 최고의 악당을 부시 대통령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오사마 빈 라덴 (8%) ▲사담 후세인 (6%)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5%)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2%) 등의 순이었다.

또 올해의 영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3%

■미국인 1,000명 설문... 평가 엇갈려  
北 김정일은 악당 순위 5위 올라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 윈프리

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이라크 미군 (6%) ▲오프라 윈프리, 배럭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 예수가 각각 3%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 중

43%가 그를 최고의 악당으로 꼽은 반면, 35세 이상 중년층의 16%,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25%는 그를 영웅이라고 지적하는 등 그에 대한 혐오 및 지지 계층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유명 인사로는 응답자의 29%가 랩퍼 케빈 페더린과 이혼한 후 파티 결과 유명한 패리스 힐튼, 린제이 로한과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밤에 외출했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꼽았고 그 다음은 ▲패리스 힐튼(18%) ▲음주 운전과 유대인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멜 깁슨 (12%) ▲17세 연하 케이티 홀츠 (27)와 요란한 결혼식을 올렸던 톰 크루즈 (9%)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본받을 만한 유명 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녀들을 위해 4천만 달러를 쾌척한 오프라 윈프리(29%)가 꼽혔고 그 다음은 ▲파킨슨씨병을 앓으며 줄기세포 연구를 앞장 서 지지해왔던 마이클 제이 폭스(23%) ▲다르푸르 난민 지원 활동을 벌인 조지 클루니 (12%) ▲민구호 활동에 나선 유엔 친선대사 안젤리나 졸리 (8%)와 ▲그의 동거남 브래드 피트 (6%)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뉴스



〈오사마 빈 라덴〉



〈김정일 위원장〉



〈오바마 상원의원〉



〈오프라 윈프리〉



28일 폭우로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아체주 타미양지역의 한 주민이 물에 잠겨버린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건져내고 있다. /AP=연합뉴스

## 印尼·말聯 폭우... 사망 132명 실종 200명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남부 지방에 최근 폭우가 쏟아져 최소 132명이 숨지고 200명이 실종됐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 등 2개 주(州)에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최소 122명이 숨지고 200명이 실종됐으며 4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아체주는 해안가 6개 지방

이 물에 잠겨 1만3천 채의 주택이 무너지거나 심하게 파손됐다. 특히 아체주의 타미양 지방은 수미터의 물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도 최근 2주 동안 내린 폭우로 조호르, 말라카, 파랑, 네게리 쉐빌란 등 4개 주(州)의 강과 댐들이 범람해 마을과 가옥이 물에 잠겼으며 10명이 숨지고 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력과 철도 등 기간시설도 크게

파괴돼 피해액은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은 헬리콥터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구호품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체주와 말레이시아 남부 지방에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콕=연합뉴스

### 후진타오 사회주의 영웅관 등 신화통신 中 10대뉴스 선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영웅관 제시를 포함한 올해의 10대 국내 뉴스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후 주석의 제시한 사회주의 영웅관은 ‘여덟 가지 영예와 여덟 가지 치욕(八榮八恥·8영8치)’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중국의 도덕 재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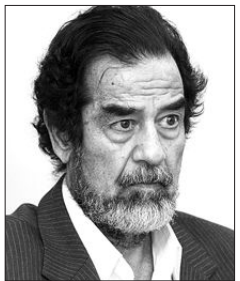
신화통신이 발표한 10대 국내 뉴스는 ▲후 주석의 사회주의 영웅관 제시 ▲9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11.5(2006-2010년) 계획 ▲4월에 실시된 중-대만간 경제무역포럼 ▲싼샤댐 완공 ▲7월 공산당 창당 85주년 ▲7월 칭징철도 개통 ▲8월 태풍 사오마이 동남해안지역 강타 ▲9월 전량위 상하이 당서기 체포와 부패투쟁 ▲10월 공산당 6중 전회가 채택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10월의 홍콩 장정 70주년 등이다. /상하이=연합뉴스

## “후세인 사형, 곧 집행 될수도”

美 NBC 방송 보도

지난 1982년 이라크 쿠르드족 148명이 학살당한 ‘두자일사건’과 관련, 이라크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이 오는 31일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미 NBC방송이 28일 보도했다.

NBC는 이날 바그다드발 보도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장교의 말을 인용,



전 후세인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드 명령은 31일 시작돼 3일간 이어진다.

NBC는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이

연례 메카 순례(하지) 종료와 함께 이어지는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가 시작되기

전 후세인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드 명령은 31일 시작돼 3일간 이어진다.

NBC는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후세인의 신병을 인계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형집행에 앞선 최종 단계 중 하나로 후세인이 “이르면 29일 처형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8일 오전 후세인의 변호인측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에게 후세인은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형집행을 위해 미국이 후세인의 신병을 이라크 당국에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후세인은 이날 두 명의 이복동생들 감옥에서 만나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후세인의 다른 변호인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연합뉴스

## “세정·피부 회춘에 좋은 매력적인 목욕문화”

NYT, 한국 ‘찜질방’ 매력 소개

미국 내에서 한국식 사우나로 소개되고 있는 ‘찜질방’이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목욕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뉴욕 인근 뉴저지 팔리세이즈 팍에 있는 찜질방인 ‘킹 스과 사우나’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찜질방을 세정과 피부 회춘에 좋은 한국의 전통 열요법으로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찜질방의 치료효능이 기술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근 맨해튼은 물론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찜질방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인들에게 이색적인 불가마와 불탄증막 같은 찜질방 시설과 목욕탕, 휴게시설을 갖춘 킹 스과 사우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면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주로 한국인들이 찾았으나 이제는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말하는 물고기, 최소한 1천여종”

비밀 속삭임·불만 투덜거림 등 다양

하와이대 연구진 밝혀

물고기들이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거나 적을 쫓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 전까지 소수 종에만 국한된 독특한 행동으로 여겨졌으나 점점 광범위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28일 보도했다.

물고기들이 내는 소리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에서 불만스러운 투덜거림, 강하게 치는 소리 등 매우 다양하며 하와이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해마는 머리를 흔들며 두개골 뒷부분을 벌모양의 뼈로 이루어진 벅에 부

딛히는 방법으로 20밀리초라는 짧은 시간에 ‘딸깍’ 소리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음향학회 회의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소한 1천종의 물고기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고 남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밝혀졌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 전역의 산호초에 126종이 분포돼 있는 밝고 화려한 줄무늬의 나비고기를 조사한 결과 80여 종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부레를 볼퐁의 측선과 함께 움직여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연합뉴스

## 日 법원 사형판결 급증 올 44명·집계이래 최다

일본의 전국 법원에서 올해 사형판결을 받은 피고가 44명에 달해 집계 시작된 1980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또 사형판결이 확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도 94명으로 종전(終戦) 이후 최대로 파악됐다.

올해 사형판결은 1심에서 13명, 2심에서 15명,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서 1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1980년 이래 사형판결을 받은 피고의 숫자는 연간 5~23명의 추이를 보인다 2001년에 30명으로 늘었고 2002년 24명, 2003년 30명, 2004년 42명, 2005년 38명 수준이었다.

신문은 사형판결이 증가하는 것은 피해자측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법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당신!  
당신이 부럽습니까?  
그럼 지금 시작하십시오.**

중국어 시작은 1월 3일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초반에서 고급까지  
모든 강의가  
**1월 3일**  
새로 시작합니다.  
1월 3일입니다.

www.chineseschool.com.cn

中国新学校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특수출판부에서 사영어학원 조성문 교수 특강

비밀번호 TOEIC, 나만의 공부법을 드립니다.  
TOEIC 800점 만점 이력 비결 공개합니다.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www.chineseschool.com.cn

동아외국어학원 30년 만에 신관으로 심수를 미션사업합니다!

(예측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앞구 ☎(051)222-0253

**동아외국어학원**